「한국지방행정학보」 제7권 제2호(2010. 12): 171-188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Leadership Continuity of the Elected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

홍 성 우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Abstract

Sung-Woo H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terminants of three-term reelection(leadership continuity) of chief official of local government from the first local election to the third local election period empirically. For the analysis, the elected officers of local governments(232) such as city, county and ward are categorized into the third-term elected officers(41) and just one time elected officers(37) by leadership continuity, that is, success or failure of reelection. Then,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age and education, the regional features like population, workers of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 local tax per person, and the policy orientation of the elected local officers are select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for the empirical model.

As a result of the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irst of all, the degree of educ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heads influence on the leadership continuity, three-term reelection as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Second, the number of workers of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 also plays a determinant of leadership continuity of the elected officials at the level of local autonomy positively. Finally the portion of fiscal spending on economic development for vitalizing the regional economy is examined as an another key determinant for securing leadership continuity through reelection of local government heads.

주제어: 리더십 연속성, 재선, 선출직 공무원, 지방정부

Key Words: Leadership Continuity, Reelection, Elected Public Officials, Local Government

I. 서론

1991년 지방의회 구성에 이어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10년 후인 2010년 6월에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위원 등이 선출되었다.

이처럼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민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5회 실시되어 현재 민선5기에 이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지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30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출되었고, 그 중에서 79명의 현직 자치단체장이 연임에 성공하였으며, 민선2기에서 민선4기까지 3선에 성공한 단체장이 9명이고, 민선3기와 4기 연임에 성공한 단체장은 70명으로 30.4%를 차지하였다. 또한 지난 2002년 6월 13일, 제3기 지방선거에서는 232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출되었고, 현직 단체장 149명이 출마하여 80명이 재선되어 54%의 연임 성공률을 보였다. 그 중에는 민선1기에서 민선3기까지 3선 연임에 성공한 단체장이 41명이었다.

현직에 있는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 집행부의 장으로서 자신의 행정스타일로 지방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과거 행정행위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임에 도전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지방선거는 초선에 도전하는 후보들과는 달리 자신들이 지역 단체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해온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 차원으로 볼 수도 있다(최승범・이환범, 2006: 285). 즉, 지방선거[1]는 지방정부 운영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정치적 평가로 볼 수도 있다(황아란, 2006: 2).

또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선출하는 이른바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는 이전 임명제 하의 관선자치단체장 시대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된다. 민선자치단체장 제도 하에서는 국가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단체보다는 지역주민에 더 역점을 두는 지방자치제로 바뀌는 것이며, 지역 주민의 위상과 지위는 높아지고,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이 신장되는 반면 책임과 의무도 확대되는 것이다(김안제, 1995: 68-69).

이러한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초 단위이며, 지역의 효율성 및 특성을 발휘해야 하는 경제적 공간단위이다.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은 정치적인 측면으로 주민대표역할, 행정적인 측면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책임자, 경제적인 측면으로 지역의 CEO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해당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직 자치단체장이 재선에 성공해 단체장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그 역할을 지속

1) 지방선거가 갖는 기능으로는 첫째,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안과 정책 이슈들을 부각시켜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을 형성케 하고, 둘째, 당선된 공직자 및 지방정부의 권위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며, 셋째, 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방정부 당국자들로 하여금 주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케 하는 기능 등(김재귀, 2003: 9-10)을 들 수 있다.

해 나가는 경우를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연속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이와는 달리 현직 단체장이 아닌 다른 후보자가 단체장으로 선출되는 경우를 단체장 리더십의 단절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리더십의 연속성 확보가 자치단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기도 부정적이기도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직 단체장이 재선에 성공한 경우에는 새로운 후보가 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어 취임 초에 야기될 수 있는 자치단체의 행정공백이나 리더십 전이비용[2](유민봉, 1998: 164) 등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자치단체장의 변화, 즉 자치단체장 리더십의 단절은 조직 변화의 촉매제로 작용해 구성원의 사기나 동기부여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유민봉, 1998: 165).

이에 본 연구는 민선1기부터 민선3기까지 연임에 성공한 기초지방자치단체(리더십의 연속성 또는 안정성을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와 매 선거 마다 자치단체장이 교체된 기초지방자치단체(리더십의 단절성 또는 불안정성을 보인 지방자치단체)로 구분[3]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의 연속성(3선 연임)과 단절성(단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논의

1.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

민선 자치단체장은 상대적으로 과거 임명제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해 주민의 수권이라는 강력한 정당성에 의하여 그 권위를 인정받고, 과거의 임명제 자치단체장의 재임기간보다 안정적인 임기를 보장받음으로써 지방정치의 장에서 핵심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이승종, 1998; 147).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재선을 위하여 단체장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자원과 권한을 토대로 지방정치 참여자들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에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이광희, 2003: 3-4). 이런 측면에서 민선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자치단체장의 역할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내·외적인 환경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지역정책 참

2) 새로이 당선된 자치단체장은 조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공무원은 신임 자치단체장의 정책지향과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 관망하는 취임 초기에 행정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리더십의 장기적인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의 변화, 자원 재 배분, 결정의 보류 등에서 야기되는 기회비용 등이 리더십 전이비용을 의미한다(유민봉, 1998: 164).

3) 홍성우·김광구(2008), "연임성패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2권 제2호: 29-50에서 3선 연임한 기초자치단체장(41개 기초 자치단체)과 단선에 그친 기초자치단체장(37개 기초 자치단체)의 연령, 학력, 경력, 정당, 득표율 등을 비교하고 있다.

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책비전이나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이승종, 1998: 149).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행정학 분야에서의 조직이론이나 공공관리론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가 공공부문으로 확대되어 대표적인 지방정부의 수장인 시장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최승범・이환범, 2006: 3). 최승범・이환범(2006)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시장의 연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크게 행정관리론적 입장과 도시정치학적 입장으로 구분하여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행정관리론적 입장에서 미국내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Kotter와 Lawrence(1974) 연구는 의전형, 단순관리자형, 개인주의자형, 고급관리자형 및 기업가형 등의 5가지 시장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장의 리더십유형을 활력/혁신활동의 고저와 정치적・재정적 권력기반의 강약에 따라 기업가형, 권력자형, 모험가형 및 중개인형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Yates(1977)의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시장이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으로 Pressman(1972)은 충분한 재정, 인적자원의 확보, 사회적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통제력, 대중매체의 도움, 정당과 같은 정치적 조직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도시정치학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정책정향(policy orientation)과 자치단체의 정책변화를 탐색하는 연구의 이론적 토대로서 원용하고 있는 것이 Peterson의 도시 한계론(city limits)이다(유재원, 1999: 80). Peterson(1981)은 도시정책 내지는 서비스를 세 가지의 유형, 즉 개발정책(development policies), 할당정책(allocation policies), 그리고 재분배정책(redistribution policies)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시 한계론 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정책선택의 제약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과 자본의 지역 간 흐름을 통제할 수 없는 지방정부는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개발정책의 추구에는 적극적이지만 이를 위협하는 재분배정책은 최대한 회피한다는 것이다(유재원, 1999: 80; 강윤호, 2000b: 355).

이러한 도시 한계론(Peterson, 1981)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경제성장에 유일한 관심을 두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데에는 중앙정부에 비해 많은 경제적 제약을 받는다. 주된 경제적 제약은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방정부는 관세장벽을 설정하거나 여권을 발급하는 등을 통해 생산적 자원의 흐름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자유롭게 이동하는 생산적 자원을 유치하기 위해 상호경쟁하게 되고, 이를 위해 도움이 되는 개발정책의 추구에는 적극적인 반면 생산적 자원의 유치를 위협하는 재분배정책을 회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지방정부는 개발정책 지향적이고 재분배정책 기피적으로 된다는 것이다(강윤호, 2000b: 355). 그러나 기존의 실증연구에서는 분

배정책으로서 사회복지 정책정향이 강화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정향은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정책결정자인 자치단체장이 정치적 지지 극대화를 위해 개발정책 또는 분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정책정향은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과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2. 선행연구 분석과 연임 영향요인

기초자치단체장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내용상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 관련 연구와 연임(재선)에 관련된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정책정향)과 관련된 연구로는 도시정치학에서 구분하고 있는 개발정책, 할당정책 및 재분배정책 등의 세 가지 정책정향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정향의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고 있는 연구(이승종・김홍식 1992; 김인철 1994; 한원택・정헌영 1994; 김태일 1998, 강윤호 2000; 이승종 2000)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 도입에 따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정향을 강화시켰다는 견해(이승종・김홍식, 1992)와 정향을 약화시켰다는 견해(김태일, 1998), 그리고 자치단체유형(광역과 기초 또는 시와 군)에 따라 정책정향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강윤호, 2000a)있어 민선 이후 자치단체장에게서 일반화된 정책정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는 연구 등이 있다. 외국의 연구 결과도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지향하게 된다는 견해(Wong, 1988)와 지방자치의 수준이 높을수록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감소한다는 견해(Peterson & Rom, 1989; DeViney, 1983; Wilensky, 1981; Cameron, 1978)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강윤호, 2000a: 214).

또한 김병식(2002)의 연구에서는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책정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Peterson의 정책정향 유형에 근거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관련 공약을 양적인 측면(공약의 數)과 질적인 측면(공약의 이행정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연구결과, 재분배정책(사회복지 정책)보다는 개발정책이 양적・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정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연임 또는 재선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이승종, 1998; 김석우, 2004; 최승범・이환범, 2006; 배상석・강주현, 2007)에 의하면, 민선자치단체장의 연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단체장 후보자의 개인적 특성(학력, 연령, 경력, 정당공천, 병역의무, 재산정도 등), 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특성(유형별 지출 규모, 재정자립도, 일인당 지방세 징수액, 세외 수입액 등) 및 기타 요인(지역 유권자수, 입후보자 수, 지역주민들의 인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승범・이환범(2006)의 연구에서는 74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중 시장의 재출마 지역인 59개 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선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설문분석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로는 지역주민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경제개발과 소득증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에 잘 대응했을 경우 시장의 당선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배상석・강주현(2007)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가 주주목하였던 지방자치제 실시가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재정지출에 변화가 있었다면, 이러한 재정지출의 변화가 과연 자치단체장의 연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개발 지출과 사회복지 지출이 시와 군의 지방자치단체장 연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으로서 경력 유형과 정당공천 여부 등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졌다.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선이나 연임(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설명변수)을 분석하고 있는 기존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는 아래의 <표 1>과 같이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연속성 또는 단절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크게 기초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 그리고 기초 자치단체(장)의 정책정향 등으로 구분하여 하위 구체적인 영향요인을 선정하였다.

<표 1>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결과변수	설명변수(영향 요인)		
	분류	변수	비고
단체장의 3선 연임 (리더십 연속성)	단체장의 개인적 특성	연령	
		학력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	지역 총인구	
		1인당 지방세	
		제조업종사자수	
		서비스업종사자수	
		후보자수	
	지자체(단체장)의 정책정향	경제개발비(개발정책)	
		사회개발비(재분배정책)	

먼저 기초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연령과 학력 등을 선정하고 있는데, 연령은 매 선거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민선 3기 동안의 분석 대상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연령에 대한 평균을 의미한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을 6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중졸은 9년, 고졸은 12년, 대졸은 16년(전문대졸이나 대학중퇴는 14년), 그리고 대학원은 18년으로 설정하였다. 기초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특성으로서의 학력과 연령은 높을수록 3선 연임을 통해 리더십의 연속성을 확보할 확률이 높아질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한 설명요인은 지역 총인구, 1인당 지방세, 재정자립도, 제조업 및 서비스업종사자수, 그리고 후보자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앞선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eterson(1981)의 도시 한계론에 의하면, 도시(지역)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증대, 세수확대, 정부서비스의 향상과 같은 다른 가치들도 수반되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경제성장은 도시(지역)정부의 최우선 목표이자 과제가 된다고 한다(최창수, 2000:21). 이러한 도시(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은 인구의 흡입요인(pulling factor)으로 작용하여 도시 지역의 인구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지역적 특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조업 종사자 수나 서비스업종사자수가 증가할수록 3선 연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한 지방재원의 확충 차원에서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 총인구가 증가할수록 3선 연임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의 대상인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경제 상황의 변화(성장 또는 쇠퇴)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종사자수의 증감과 같은 고용변화, 지방세 증감, 그리고 재정자립도 등의 변화를 유인할 수 있고, 이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책정향이나 행정역량의 발휘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연임(리더십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즉,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중에서 경제개발비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3선 연임의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Ⅲ.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 현황 분석

1. 시기별 당선인 현황

먼저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95년(1기), 1998년(2기) 및 2002년(3기)에 걸쳐 진행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당선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연령, 학력, 그리고 소속 정당 등으로 구분하여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연령별 분포 현황

구분	합계	40세 미만	41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55세 미만	55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1기	230	5(2.17)	31(13.48)	45(19.57)	81(35.22)	68(29.57)
2기	232	5(2.16)	34(14.66)	29(12.50)	71(30.60)	93(40.10)
3기	232	4(1.72)	39(16.81)	43(18.53)	66(28.45)	80(34.48)

우선 당선자들의 연령별 분포 현황은 위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선 3기 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후보자들은 주로 55세 이상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 연령대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학력별 분포 현황

구분	합계	고졸 이하	대학재・중퇴[4]	대졸[5]	대학원재・수료・졸	기타[6]
1기	230	35(15.22)	21(9.13)	117(50.87)	56(24.35)	1(0.43)
2기	232	44(19.97)	22(9.48)	107(46.12)	56(24.14)	3(1.29)
3기	232	27(11.64)	28(12.07)	86(37.07)	91(39.22)	0

민선 3기 동안 당선인들의 학력별 분포 현황은 대졸 이상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학력자의 당선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민선 3기 당선인 중에는 대학원 재학 이상의 비율(40%)이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 정당별 분포 현황

1기	구분	민자당	민주당	자민련	기타 정당	무소속
	230	70(30.44)	84(36.52)	23(10.0)	0	53(23.04)
2기	구분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기타 정당	무소속
	232	74(31.90)	84(36.21)	29(12.50)	1(0.43)	44(18.97)
3기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기타 정당	무소속
	232	140(60.34)	44(18.97)	16(6.90)	2(0.86)	30(12.93)

민선 3기 동안 당선인들의 소속 정당별 분포 현황에 있어 민선 1기와 민선 2기는 중앙 정부의 집권 정당, 즉 여·야당 소속여부에 따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야 정당 소속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민선 3기 2002년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소속의 당선자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무소속의 당선인 비율은 민선 1기에서 민선 3기로 진행되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민선 2기 3명, 민선 3기 6명 등 총9명의 전문대졸업자를 포함하고 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대선거정보시스템(http://www.nec.go.kr/sinfo/index.html)의 당선인 현황 및 당선인 관련 통계자료에서 "00대 수료"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대학졸업"으로 간주하였다.
6) '독학' 또는 '미기재'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3선 연임과 단임 지방자치단체

다음의 <표 5>는 민선 3기 동안 연임에 성공한 기초자치단체와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고 매 선거마다 자치단체장이 교체된 기초자치단체의 현황을 광역시·도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7)]

지난 민선 3기 동안 3선 연임에 성공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총 41개 지역으로 14개 시, 14개 군 및 13개 구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민선 3기 동안 재임에 성공하지 못하고 자치단체장이 매기 교체된 기초자치단체는 총37개 지역으로 14개 시, 8개 군 및 15개 구이다.

<표 5> 연임 및 단임 기초지방자치단체 현황

구 분	연임 기초 자치단체	단임 기초 자치단체[8)]
합계	41/232[9)]	37/232
서울	중구, 성동, 광진, 서초, 강남, 강동(6/25)	용산, 동대문, 중랑, 도봉, 양천, 강서, 영등포(7/25)
부산	영도, 사하, 연제(3/16)	해운대(1/16)
대구	북구, 수성, 달서(3/8)	중구(1/8)
인천	옹진(1/10)	남구, 남동, 부평, 계양, 서구(5/10)
광주		남구(1/5)
대전	대덕(1/5)	
소계	14/74[10)]	15/74
경기	평택, 이천(2/31)	성남, 의정부, 안산, 구리, 오산, 시흥, 의왕, 안성(8/31)
강원	강릉, 태백, 속초, 삼척, 횡성, 정선, 양구(7/18)	원주, 철원, 고성(3/18)
충북	충주, 옥천(2/11)	청주(1/11)
충남	당진(1/15)	보령, 홍성(2/15)
전북	김제, 진안, 무주(3/14)	부안(1/14)
전남	영광, 장성(2/22)	여수, 순천, 나주, 강진, 신안(5/22)
경북	김천, 구미, 상주, 의성, 영덕, 청도(6/23)	영양, 울진(2/23)
경남	진해, 김해, 밀양(3/20)	
제주	북제주(1/4)	
소계	27/158	22/158

7) 홍성우・김광구(2008), “연임성패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2권 제2호: 40-41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8) 민선 3기 내내 다른 후보자가 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지역뿐만 아니라 민선 1기에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었다가 민선 3기에 다시 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지역도 포함하고 있다
9)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총수는 민선 3기 지방선거가 치러진 2002년 기준이다.
10) 민선 1기 자치단체장이 선출된 1995년 이후인 1997년 울산광역시가 출범되어 3선 연임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나 울산시의 5개 구는 기초 자치단체 총수에 포함하고 있다.

이를 광역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6개 자치구청장이 3기 동안 연임에 성공한 반면 7개의 자치구에서는 매번 자치구청장이 교체되었다. 부산시는 16개의 자치구 중에서 해운대구만이 구청장이 매번 교체되었고, 영도, 사하구 및 연제구 등 3개의 구에서 행정 지도력에 연속성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에 있어서도 8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중구가 단절적인 단체장 리더십을 보이고 있고, 북구 등 3개 구에서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지도력을 보이고 있다. 광주의 경우에는 3기 동안 연임에 성공한 기초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으며, 단절적인 지도력을 보이는 곳도 남구 단 한 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대전광역시는 3기 동안 연임에 성공한 기초자치단체장은 한 명이 있는 반면에 3기 내내 매번 자치단체장이 교체된 곳은 없다.

다음으로 9개의 광역도에 대해 살펴보면, 경기도는 31개 자치단체 중에서 단 2곳만이 3선 연임에 성공한 반면, 8개의 자치단체에서는 매번 단체장이 교체되었다. 강원도는 경기도와는 달리 3선 연임에 성공한 자치단체가 7개 시・군으로 매번 자치단체장이 교체된 3곳보다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자치단체장 리더십의 연속성을 보이고 있다. 충북의 경우에는 3선 연임에 성공한 곳은 2개 시・군이고, 매번 단체장이 교체된 곳은 1개 시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은 3선 연임에 성공한 곳이 1개 군이고, 2개 시・군에서 매 선거마다 다른 자치단체장이 선출되었다. 전북에 있어서는 3개 시・군이 3선 자치단체장을 배출한 반면 1개 군에서만이 단체장이 매번 교체되었고, 전남은 2개 군에서 3선 연임한 단체장이 나온 반면 5개 시・군에서는 매번 단체장이 교체되었다. 경북의 경우에는 6개 시・군의 장이 3선 연임에 성공했으며 2개 군에서는 매번 단체장이 교체되었다. 경남과 제주에 있어서는 3개 시와 1개 군에서 3선 연임에 성공한 자치단체장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전체에서 3선 연임에 성공해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있어 연속성을 보인 기초자치단체의 비율(74개 자치단체 중 14곳으로 18.9%)과 매 선거마다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당선되어 단체장의 리더십에 단절성을 보인 기초자치단체의 비율(74개 자치단체 중 15곳으로 20,3%)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9개 광역도의 158개 기초자치단체중 27개 시・군(17.1%)에서 3선 연임에 성공해 자치단체장들의 연속적인 리더십을 보였으며, 22개 시・군(13.9%)에서는 매번 자치단체장이 교체되는 리더십의 단절성을 보여주고 있다.

Ⅳ. 리더십 연속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1. 분석 내용 및 분석모형

1) 분석의 범위와 자료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기초자치단체장이 민선2기를 거쳐 민선3기까지 3선 연임에 성공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지속적인 리더십연속성을 보인 41명의 기초자치단체장(또는 기초 자치단체)과 매 선거 마다 자치단체장이 교체되어 리더십의 단절성을 보인 37개 기초자치단체장(또는 기초 자치단체)이 분석의 시간적·공간적 분석 범위이다.

분석에 활용되는 자료는 단체장의 개인적 특성,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적 특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정향으로 구분되며, 그 구체적인 통계자료의 내용 및 출처는 다음의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6> 자료에 대한 설명 및 출처

결과(종속) 변수	설명(독립)변수 (영향 요인)		
	분류	변수	변수에 대한 설명(자료출처)
단체장의 리더십 연속성 (3선 연임)	단체장의 개인적 특성	연령	- 개별 지자체장 연령의 평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조회시스템)
		학력	- 초등학교 졸업을 6년, 고등학교 졸업 12년, 대학졸업 16년 등으로 구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조회시스템)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	지역 총인구	- '96년 대비 '06의 지역 총인구 변화율(국가통계포털-KOSIS)
		1인당 지방세	- '96년 대비 '06의 1인당 지방세 변화율(국가통계포털-KOSIS)
		제조업종사자수	- '96년 대비 '06년의 제조업종사자수 변화율(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업종사자수	- '96년 대비 '06년의 제조업종사자수 변화율(국가통계포털-KOSIS)
		후보자수	- 각 선거시 후보자수의 평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조회시스템)
	지자체 (단체장)의 정책정향	경제개발비 (개발정책)	- 지자체 세출예산중 경제개발비 비중에 대한 2000-'06년의 평균(재정고 지방재정통계)
		사회개발비 (재분배정책)	- 지자체 세출예산중 사회개발비 비중에 대한 2000-'06년의 평균(재정고 지방재정통계)

2) 분석 모형

기초자치단체장 리더십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질병의 발생 유무 혹은 생존과 사망, 그리고 신용상태가 좋거나 나쁘거나, 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기업이 성공하거나 실패할 경우 등으로 표현되는 이항적인(binary) 사건인 경우에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때 연구자는 발생확률을 추정하고, 그 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에서의 모형은 주어진 독립변수 (X1, X2,...,Xk) 하에서 종속변수의 평균이 독립변수에 대한 선형식 으로 표현된다. 즉, E[Y|X]=β0+β1X1+ ・・・+βkxk로 나타낼 수 있다. 반면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반응변수가 2개의 가능한 값 (예/아니오, 생존/사망, 성공/실패 등)을 갖는 이항반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반응변수가 이항변수 일 때 E[Y|X]=Px가 되고, Px는 다음과 같이 모형화 된다.

$$p_x = \frac{\exp(\beta_0 + \beta_1 x_1 + \ldots + \beta_k x_k)}{1 + \exp(\beta_0 + \beta_1 x_1 + \ldots + \beta_k x_k)}$$

이때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n\left(\frac{p_x}{1-p_x}\right) = \beta_0 + \beta_1 x_1 + \ldots + \beta_k x_k$$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분석결과 유의한 독립(설명)변수가 반응(종속)변수를 변동시키는 정도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이다. 여기서 독립변수가 반응변수를 변동시키는 정도를 위험도(risk)라 하는데, 전향적(prospective) 코호트 연구의 경우에는 비교위험도(Relative Risk, RR)라 하며, 후향적(retrospective) 연구의 경우에는 대응 위험도(Odd Ratio: OR)라 한다. OR의 경우 로짓 값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는데 가령 X1의 효과를 보고자 할 때 다른 공변량 들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ln\left(\frac{p_1}{1-p_1}\right) - \ln\left(\frac{p_0}{1-p_0}\right)$를 해주면 X1=0 일 때에 비해 X1=1 일 때 log(OR)값을 구할 수 있다.

$$\ln\left(\frac{p_1}{1-p_1}\right) - \ln\left(\frac{p_0}{1-p_0}\right) = (\beta_0 + \beta_1 + \beta_2 x_2 + \ldots + \beta_k x_k) - (\beta_0 + \beta_2 x_2 + \ldots + \beta_k x_k) = \beta_1$$

따라서 ln(OR)=β1이 되고, OR은 exp(β1)으로 나타낼 수 있다(위성승・남진현, 2007:

79-80). 여기서 exp(β1)의 값은 해당 변수의 1단위 값이 증가할 때 내부 값이 1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몇 배 인지를 의미한다.

2. 리더십 연속성의 영향요인 분석

분석모형의 종속변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가능성,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로는 개인적 특성으로서 학력과 연령, 지역적 특성으로서 지역 총인구, 제조업종사자수 및 서비스업 종사자수, 1인당 지방세 부담액, 그리고 선거에 출마한 지역별 후보자수,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정책정향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의 비중을 선정하여 독립변수 전체를 투입하는 입력(enter)방식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1)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적합성

<표 7> 모형요약

단계	-2 Log 우도	Cox와 Snell의 R-제곱	Nagelkerke R-제곱
1	82.027	.283	.377

<표 8> 모형 계수 전체 테스트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1단계	단계	25.899	9	.002
	블록	25.899	9	.002
	모형	25.899	9	.002

위의 <표 7>의 -2 Log 우도(-2 log likelihood; -2LL)은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2LL값이 낮을수록 적합도가 높으며, 만약 -2LL이 0인 경우에는 모형의 적합도는 완벽함을 의미한다(이학식·임지훈, 2008: 329). 본 분석모형의 -2 Log 우도 값은 82.027로 나타났는데 위 <표 8>의 카이제곱 값인 25.899만큼 상수항만으로 구성된 2LL값(107.926=82.027+25.899)에 비해 독립변수들이 포함된 모형의 -2LL값(82.027)이 낮아졌으므로 모형의 적합도는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표 8>은 상수항만으로 구성된 모형과 독립변수들이 포함된 모형의 적합도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즉,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 분석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의 계수값이 0(즉,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종속변수를 예측하는데 유용하지 않다)이라는 귀무가설(H0: 회귀모형은 유의하지 않다)을 검증한

결과이다. 통계적 유의확률은 0.002로 유의수준 α=0.05 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은 기각되고,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은 0이라고 할 수 없으며, 모형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표 9> Hosmer와 Lemeshow 검정

단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1	7.929	8	.440

위의 <표 9>의 Hosmer와 Lemeshow의 카이제곱 값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fit)를 나타내는 값이다. 이 값은 종속변수(연임 또는 단임)의 실제 관측치와 모형에 의한 예측치 간의 일치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도는 높다. 본 회귀모형의 카이제곱 값은 7.929이고, 유의확률은 .44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종속변수의 실제 관측치와 예측치 간의 차이가 작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수용할 만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 분류표

구 분		예측값		
		연임	단임	분류정확(%)
관측값	연임	31	10	75.6
	단임	12	25	67.6
전체(%)				71.8

위의 <표 10> 분류표의 분류행렬을 살펴보면, 3선 연임과 단임 가능성에 대한 관측값(observed)과 예측값(predicted)이 나타나 있다. 연임 가능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옳게 예측한 확률은 75.6%이며, 단임에 그칠 지방자치단체장을 옳게 분류한 확률은 67.6%로, 전체적으로 연임과 단임을 옳게 분류한 확률은 71.8%로 나타나고 있다.

2)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

<표 11>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연령	.049	.057	.736	1	.391	1.050

	B	S.E.	Wald	자유도	유의 확률	Exp(B)
학력	.307	.160	3.688	1	.055	1.360
총인구	-.053	.026	4.008	1	.045	.949
1인당지방세	-.003	.003	1.237	1	.266	.997
제조업종사자수	.020	.010	4.125	1	.042	1.020
서비스업종사자수	.046	.027	2.844	1	.092	1.047
후보자수	-.793	.353	5.052	1	.025	.453
경제개발비	.067	.040	2.797	1	.094	1.069
사회개발비	-.022	.038	.327	1	.567	.978
상수	-5.348	5.135	1.085	1	.298	.005

위의 <표 11>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α<0.05)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즉 리더십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총인구 변화, 제조업종사자수 변화, 그리고 후보자수 등이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제조업종사자수의 변화로 제조업종사자수 변수 값이 1단위 증가하면, 3선 연임의 확률이 1.02배 증가한다. 반면 총인구 변수와 후보자 변수의 B값의 부호가 부적(-)이기 때문에 해당 변수의 값이 1단위 증가하면 3선 연임의 가능성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의수준을 α<0.1로 볼 때, 학력, 서비스업, 그리고 경제개발비 등의 변수가 기초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학력이라는 변수의 값이 1단위 증가하면, 3선 연임의 가능성은 1.36배, 서비스업 변수의 값이 1단위 증가하면 1.047배, 그리고 경제개발비 변수의 값이 1단위 증가하면 1.069배 증가함을 알 수 있다.

Ⅴ. 분석의 논의 및 제언

이상에서 민선 1기부터 민선 3기까지의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들 중에서 3선 연임에 성공한, 즉 리더십의 연속성(continuity)을 보인 자치단체장과 매번 새로운 자치단체장으로 교체되어 리더십에 단절성(discontinuity)을 보인 자치단체장을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즉 리더십의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실증분석을 위해 우선 230여개의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3선 연임에 성공한 기초자치단체(41개 자치단체로 14개 시, 14개 군 및 13개 구)와 단임에 그친 기초 자치단체(37개 자치단체로 14개 시, 8개 군 및 15개 구)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연임과 단임이라는 리더십의 연속성과 단절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선행연구의 검토와 자료의 구득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인적 특성, 지역적 특성, 그리고 정책적 정향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변수를 선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기초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연령과 학력 등을 선정하고 있는데, 3선 연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특성으로서 학력과 연령이 높을수록 3선 연임을 통해 리더십의 연속성을 확보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유의한 수준($\alpha<0.1$)에서는 학력 수준만이 높을수록 3선 연임의 확률(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한 설명요인으로는 지역 총인구, 1인당 지방세, 제조업 및 서비스업종사자수, 그리고 후보자수 등을 선정하였다. 로지스틱 분석결과는 제조업 종사자 수나 서비스업종사자수 변화율이라는 변수의 값이 1단위 증가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의 연임의 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당 지역의 총인구 변화라는 변수의 1단위 값이 증가하면 3선 연임의 확률보다는 단임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져 가정과는 달리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와 관련한 지역적 특성으로서 등록 후보자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alpha<0.05$)에서 1단위 증가할 때 단임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정향을 반영한 변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중에서 경제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도시 한계론 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유의한 수준($\alpha<0.1$)에서 변수 값의 1단위가 증가할 때 3선 연임의 가능성은 1.06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개발비의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어지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장의 연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학력, 지역적 특성으로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활성화, 그리고 기초 자치단체(장)의 정책정향으로서 지역 경제개발을 위한 세출예산의 증대 등으로 분석되어 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이 재선 또는 3선에 성공해 자치단체장으로서의 리더십의 연속성(continuity)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학력 수준을 높이는 노력과 더불어 보다 중요하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개발 부문의 세출증대, 그리고 지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즉 리더십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해 보았으나 기존 연구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선 또는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정당 공천여부나 재산 정도 요인 등이 자료의 구득가능성 또는 분석의 기법의 한계로 모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연임과 관련한 보다 광범위한 기초자료의 구득과 더불어 보다 정치한 분석모델을 활용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윤호. (2000a). “지방자치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정향: 시・군・자치구간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34(1): 213-227.

_____. (2000b). “정부간 정책선택의 차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사회복지지출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34(3): 353-370.

김광주. (2006). 5. 31 지방선거의 분석과 정책과제. 「대한정치학회보」, 14(2): 155-175.

김병국. (1995). 「직선자치단체장의 바람직한 역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병식. (2002),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과 공약이행평가에서 나타난 사회복지정책정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2): 201-217.

김석우. (2004). 기초단체장 충원과정에 관한 연구: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 결정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1): 215-231.

김석우・임성학・전용주. (2008). 한국정치사에서 5.31 지방선거의 의미: 정치적 충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2): 349-373.

김안제. (1995).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의 지방행정 방향. 「지방행정」, 44(5): 67-73.

노우영・최성락. (2005).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2005년도 행정학회・정책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65-379.

마명욱. (1996). 민선자치시대의 단체장의 역할. 한국정치학회 월례발표자료.

박병희. (2006). 민선자치 10년간 재정자립 지표의 추이에 대한 연구. 「재정정책논집」, 8(1), 109-128.

배상석・강주현. (2007). 정부지출이 민선자치단체장 연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1(1): 153-173.

주용학. (2007). 민선4기 지방선거 결과 분석 및 정책적 함의: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1): 29-51.

안용식 외. (2006).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서울.

유민봉. (1998).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전이. 「한국행정학보」, 32(1): 163-180.

유재원. (1999). 단체장 민선이후 자치단체 정책변화. 「한국정책학회보」, 8(3): 79-98.

이광희. (2003).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지역발전과 리더십 기술의 연계-. 「한국행정논집」, 15(1): 643-665.

이승종. (1995).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자질. 「한국행정학회 1995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1-33.

_____. (1998). 민선자치단체장 리더쉽의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32(1): 147-161.

_____. (2000),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정향”, 「한국행정학보」, 34(4): 197-215.

이창원. (2000).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이 단체장의 리더십 행태와 그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34(2): 139-160.
_____. (2002). 내용분석법을 이용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리더십 유형 및 요인분석. 「한국행정논집」, 14(4): 1063-1087.
이학식·임지훈. (2008). 「SPSS 14.0 매뉴얼」, 서울: 법문사.
임수복. (2002).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확인 및 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2001년도 동계학술대회세미나자료집」, 87-111.
임승빈・이재성. (2005). 지방정부 역량과 단체장 역량과의 관계성: 민선 10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의 자치구와 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7(3): 857-878.
위성승・남진현. (2007). "SAS/AF 소개 및 SCL 언어를 이용한 생존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 시스템 구현", 「통계연구」, 14: 77-91.
유재원. (1999). "단체장 민선이후 자치단체의 정책변화: Peterson의 도시한계론 검증", 「한국정책학회보」, 8(3): 79-98.
전선일. (2004). 3선 기초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4(2), 103-120.
제갈돈・김태영・이환범. (200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운영성과 평가 - 81개 시 단위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4(2): 283-308.
최승범・이환범. (2006). 기초자치단체 시장 연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논집」, 18(1): 285-309.
최창수. (2000).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쉽과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원택・정헌영. (1994). "지방차지실시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변화 및 원인", 「지방자치연구」, 6(2): 5-27.
황아란. (2006). "정당경쟁과 한국 지방선거의 구조화", 「한국과 국제정치」, 22(2): 1-28.
홍준현. (1999).「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역할 재정립 방안」.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연구보고서.
홍성우・김광구. (2008). "연임성패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비교정부학보」, 12(2): 29-5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접수일(2010년 09월 26일)
수정일자(2010년 10월 17일)
게재확정일(2010년 10월 30일)